

제2권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2권 12편 세 직분 · 선지자, 왕, 제사장

제2권 15장 2절(중간부터)~6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 605~613쪽). 15장 1절과 2절 앞부분은 자료에 없음. 자료 끝의 16장 1~2절 앞부분은 다음 편 내용이라 이 정리에서 뺐.

?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실제로 하시는 일은 뭘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구약에서 선지자·왕·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세 직분을 맡으셨다.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려 주셨으므로 복음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왕으로서 그는 교회 전체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지키신다. 다만 그 나라는 땅의 번영이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영적인 나라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자기 죽음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까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드리려는 미사를 이 제사장직을 부족하게 여기는 일로 보고 비판하며 편을 맺는다.

절별 정리

2.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자료가 절 중간부터 시작됨 · 절 제목은 정리자가 붙임)

자료는 문장 중간에서 시작한다. 문맥상 구약에서 선지자·제사장·왕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다. 그래서 약속된 중보자(하나님과

보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사야 61장이 보여 주듯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를 알리는 전령이자 증인이 되셨고, 다른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기름 부음은 그분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동시에 그가 전하신 가르침은 완전해서 모든 예언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1. '메시아'는 특히 왕직이지만 세 직분 모두다
2.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은혜의 전령이자 증인
3. 기름 부음은 머리에서 몸(교회)으로 흐른다
4. 그의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마무리했다
5. 복음에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는다

이사야 61:1-2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임을 보여 줌

¹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²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4:18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참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태복음 17:5

“그의 말을 들으라” —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가르침의 권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3:17

세례 때 들린 같은 하늘 음성(참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엘 2:28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지체들에게까지 퍼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지혜이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3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2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심 — 복음의 단순함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가 전하신 완전한 교리가 모든 예언들을 종결지었다”

칼빈은 왕직을 다루기 전에 먼저 경고한다. 이 왕직이 영적이라는 점을 모르면 논의 자체가 헛되다. 그리스도 나라의 힘과 영원함,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유익이 모두 이 영적 성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영원성은 두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 전체의 영원성이다. 시편 89편은 다윗의 왕위가 해와 달처럼 영원하리라고 맹세한다. 그런데 실제 다윗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뒤 나뉘었고 결국 부끄럽게 망했으므로,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 위에 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시편 2편, 110편). 둘째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성이다. 땅의 것은 모두 지나가므로, 이 영원성은 우리 소망을 하늘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 다가올 세상에서 완전히 열매 맺기를 기다리게 한다.

1. 왕직은 영적이다 — 모든 논의의 출발점
2. 영원성 하나: 교회 전체가 영원히 보존된다
3. 다윗 왕국은 망했지만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4.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
5. 영원성 둘: 각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

다니엘 2:44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께 돌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누가복음 1:33

천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백성의 구원과 연결함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시편 89:35-37

³⁵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³⁶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³⁷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열왕기상 12장

솔로몬 뒤 왕국 분열 — 다윗 왕조로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참조)

¹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²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³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⁵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 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⁶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

열왕기하 24장

다윗 왕조의 부끄러운 끝(참조)

¹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²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³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⁵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⁶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칼빈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지체들과 하나 되신다는 선언으로 읽음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시편 2:1-4

세상 왕들의 반역은 헛됨 — 교회 보존의 확신

¹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²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³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⁴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110:1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 하나님의 작정은 뒤집히지 않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요한복음 18:36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 소망을 하늘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4.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오는 영적 축복

왕직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힘과 유익도 보인다. 신자는 이 땅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싸우며 살기 때문에 형편이 고단하다. 이 땅 너머의 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왕 아래 모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영적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가 안팎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자기보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래서 본래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선물을 '첫 열매'로 주셔서 마귀와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도, 땅의 영광을 꿈꾸지 말고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난과 멸시를 겪어도 왕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신다.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에 보답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1. 약속된 행복은 재물·안락이 아니라 하늘 생명
2. 왕은 필요를 채우고 영적 원수를 막으신다
3. 그의 통치는 자기보다 우리를 위한 것
4. 하나님 나라 = 성령 안의 의·평강·희락
5. 그의 의를 입고 세상의 비난을 이긴다
6. 값없이 받은 은혜에 열매로 보답한다

누가복음 17:20-21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고 “너희 안에” 있음

²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²¹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17

그 나라의 내용: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5.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 성격



왕에게 부은 기름은 실제 기름이 아니라 성령이다(이사야 11:2).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것은 아들 혼자 부요해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에서 굶주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의 쾌락이나 안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고, 칼빈은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속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도 왕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로 서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말은 나라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완전한 영광의 때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편'에 앉히셔서 자기 권세를 모두 가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성경이 그를 '주'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아들이 자기 권세를 '아버지의 선물'이라 부르시는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 가까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지, 이사야 33장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왕이자 목자이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부수시며, 그 완전한 증거는 마지막 심판에서 드러난다.

1. 왕의 기름 = 성령,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흐름
2. 그래서 그 나라는 쾌락·안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3. '나라를 바침' = 끝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
4. 우편에 앉으심 = 아버지 권세를 가진 대리자
5.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하나님
6. 순종하는 이에겐 목자, 거역하는 자에겐 심판자

이사야 11:2

왕의 기름 부음은 성령(지혜·총명·모략·재능·지식·경외의 영)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시편 45:7

'즐거움의 기름' — 동료보다 뛰어나게 부음 받으심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3:34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16

그 충만에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에베소서 4:7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32

세례 때 비둘기 같은 성령 — 기름 부음의 눈에 보이는 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가복음 3:22

같은 장면(참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2:20

성령과 그 선물을 '기름 부음'이라 부르는 성경의 용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27

같은 용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15:24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 — 영원성과 충돌하지 않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28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 — 통치 방식이 바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20-23

우편에 앉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심

²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²¹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²²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²³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빌립보서 2:9-11

모든 이름 위의 이름, 모든 무릎이 꿇음

⁹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¹¹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고린도전서 8:5

세상에는 '주'라 불리는 이가 많음(참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8:6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다스리심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사야 33:22

교회의 왕이자 율법 제정자인 하나님 = 그리스도

대저 여호와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시편 2:9

철장으로 부숨 —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통치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110:6-7

나라들을 심판하심 —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 줌

⁶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⁷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쾌락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제사장직의 목적은 흠 없는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자기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속죄(죄의 값을 치러 죄를 덮는 일)가 반드시 사이에 들어와야 했고, 그리스도는 제물을 들고 나서실 수밖에 없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끝 무렵까지는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의 제사로 우리 죄책을 없애고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오직 그에게 속한다고 가르친다. 그는 영원한 중재자로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여기서 기도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이 나온다. 율법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분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셨다. 다른 무엇도 죄값을 치를 수 없었고,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이도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까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자신과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칼빈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다시 제물로 드리려는 시도를, 그의 제사장직에 만족하지 않는 거짓이라고 비판한다.

1.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2. 제사장직의 혜택은 그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3. 제사장이자 제물, 한 분이 다 이루셨다
4. 지금도 간구하시니 기도에 확신이 생긴다
5. 우리는 더러우나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
6. 그리스도를 다시 드리려는 미사를 비판

히브리서 9:7

피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감 —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레위기 16:2-3

²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³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히브리서 7-10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길게 다룬 본문 전체

히브리서 9:22

죽음의 제사로 죄책을 없애고 값을 치르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시편 110:4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 —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맹세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5:6

같은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함(참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7:15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참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요한계시록 1:6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심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7:19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미침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니엘 9:24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 — 그림자가 끝나고 참 제사장직이 빛남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들 자신은 더러우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오해와 반론

용어

직분

하나님께 맡겨진 공적인 역할. 여기서는 선지자·왕·제사장 세 가지를 말한다.

기름 부음

구약에서 사람을 특별한 직분에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던 의식.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그 기름이다.

메시아 / 그리스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화해시키고 이어 주는 분.

속죄

죄의 값을 치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고 없애는 일.

멜기세덱의 서열

레위 가문 출신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의 계보. 시편 110:4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우편에 앉으심

아버지의 모든 통치 권세를 맡은 대리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

첫 열매

앞으로 받을 완전한 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성령의 선물.

교리의 개요

가르침의 핵심 줄거리. 칼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완전한 지혜가 다 담겼다고 본다.

미사

로마 가톨릭의 성찬 예배.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보고 비판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선지자·왕·제사장 세 직분이 모두 담겨 있고, 그 기쁨은 성령이다.
- 선지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완전하므로 복음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 왕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어서 영원하다. 교회를 지키고 각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다.

- 세 직분 모두 '그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며,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온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